광주·전남 명문고가 사라진다

올해 서울대 10명이상 합격 고교 한 곳도 없어

대구 5곳·부산 3곳 등 전국 52개교와 대조

올해 서울대 입시에서 10명 이상의 최초 합격자를 배출한 고교가 전국적으로 52개교에 달했으나, 광주·전남 지역 고교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학생들의 실력저하 우려를 낳고 있다.

광주·전남은 지난 2004년 문성고(12명)·숭덕고(11명), 2005년 숭덕고(15명)·고려고(13명)·대광여고(12명), 2006년 순천고(12명) 등 최근 3년 사이 1~3개 고교에서 10명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했었다.

13일 서울대가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학년도 서울대 정시·수시 모집에서 광주 39개교 130명, 전남 26개교 62명 등 광주·전남 65개 고교에서 모두 192명이 합격했다. 광주지역 합격자수는 광주일보가 각 학교가 밝힌 합격자 수를 취합한 것〈본보 2월 9일자 7면〉에 비해 4명이 적었다.

광주과학고·광주숭일고·광양제철고가 각각 7명으로 지역에서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했고 광주 국제고·살레시오고·숭덕고가 각각 6명의 합격자를 냈다. 특히 영광 해룡고가 전남에서 두 번째로 많은 6명을 합격시켜 전통적인 명문고인 목포·순천고를 제치며 일약 지역 명문고로 도약했다.

하지만 10명 이상 합격자를 낸 학교는 한 곳도 없었다. 반면 대구는 경신고(20명)·능인고(15명)·대륜고(14명)·오성고(11명)·대구외국어고(10) 등 5개교가 10명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해 대조를 보였다.

이외 부산은 한국과학영재학교(37명)·부산외고(13명)·부산국제고(10명) 등 3개교에서, 대전은 대성고(14명)·대전대신고(10명) 등 2개교에서, 인천은 인천과학고(14명) 1개교에서, 전북은 상산고(17명) 1개교에서 각각 10명 이상의 합격자를 냈다.

한편 올해 서울대 정시·모집에서 과학고·외국어고 등 특목고 출신 합격자가 전체의 19%를 차지했다.

특히 과학고와 과학영재학교 출신 합격자의 증가가 두드러져 전체 과학고 합격자는 전체 최초 합격자의 7.9%인 268명으로 지난해(164명)에 비해 급증했다.

반면 외국어고 합격자는 대원외국어고와 명덕외국어고를 비롯해 한영외국어고(22명)·대일외국어고(14명)·안양외국어고(14명) 등 15개 외국어고에서 6.2%인 211명이 배출돼 지난해(226명)보다 다소 줄었다.

올해 서울대에 최초 합격자를 배출한 고교 수는 883개교로 2002년(618개교), 2004년(775개교), 2006년(846개교)에 이어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광주·전남 고교별 서울대 합격자 수

합격자 수	광주	전남
7명	광주과학, 광주숭일 〈2개교〉	광양제철 〈1개교〉
6명	국제, 살레시오, 숭덕 〈3개교〉	해룡 〈1개교〉
5명	고려, 광주인성, 금호, 대광여, 문성, 살레시오여 〈6개교〉	목포 〈1개교〉
4명	광덕, 광주석산, 대성여, 동아여, 송원 〈5개교〉	순천, 순천여, 장성, 전남과학 〈4개교〉
3명	광주동성, 광주서석, 광주수피아, 광주제일, 광주중앙여, 서강, 송원여, 운남, 전남 〈9개교〉	능주, 목포홍일, 창평 〈3개교〉
2명	광주경신여, 광주, 광주대동, 광주동신여, 광주여, 광주진흥, 정광 〈7개교〉	부영여, 여수, 해남 〈3개교〉
1명	광주동신, 광주예술, 설월여, 전대사대부, 전남여, 조대부, 풍암 〈7개교〉	강진, 나주, 녹동, 목포덕인, 문태, 순천매산, 순천매산여, 순천효천, 영암여, 완도, 진도, 학다리, 함평 〈13개교〉
계	39개교 130명	26개교 62명

■타지역 고교 서울대 합격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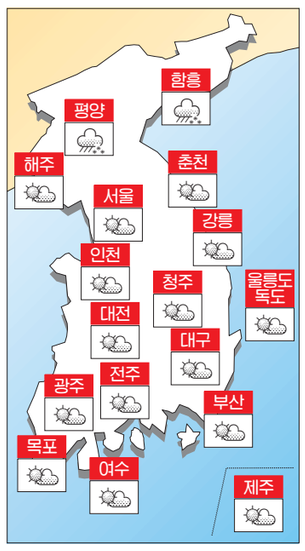
합격자 수	대전	대구	부산	인천	전북
37명			1개		
20명		1개			
17명					1개
16명					
15명		1개			
14명	1개	1개		1개	
13명			1개		
11명		1개			
10명	1개	1개	1개		
9명	3개	3개		1개	
8명	2개	1개	2개		
7명	3개	2개	3개	1개	
6명		2개	2개		1개
5명	1개	4개	2개	6개	3개
4명	2개	3개	8개	7개	6개
3명	4개	7개	10개	9개	7개
2명	5개	10개	16개	11개	5개
1명	12개	12개	22개	18개	16개
계	34개교 135명	49개교 216명	68개교 235명	54개교 155명	39개교 109명

봄날의 오후

3월 14일 (음 1월 25일) ◇전국날씨

맑은 후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다.

광 주	맑은 후 흐림	1~15℃
목 포	맑은 후 흐림	3~13℃
여 수	맑은 후 흐림	5~13℃
완 도	맑은 후 흐림	3~14℃
구 례	맑은 후 흐림	-3~16℃
해 남	맑은 후 흐림	-1~14℃
장 흥	맑은 후 흐림	-1~14℃
고 흥	맑은 후 흐림	2~14℃
순 천	맑은 후 흐림	-3~15℃
영 광	맑은 후 흐림	1~14℃
진 도	맑은 후 흐림	0~14℃
전 주	맑은 후 흐림	0~14℃
남 원	맑은 후 흐림	-2~15℃
정 읍	맑은 후 흐림	1~14℃



서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1.5m
먼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2.0m
남해서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1.5m
먼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2.0m

목 포 밀물〈09:51 21:34 썰물〈01:42 16:41
여 수 밀물〈05:33 17:29 썰물〈12:06 23:43

▲해뜸 06:46 ▲해짐 18:38 ▲달뜸 03:29 ▲달짐 12:59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5(목)	16(금)	17(토)	18(일)	19(월)	20(화)
날 씨						
최저/최고	4/14	4/9	1/10	0/11	1/13	1/14

요리 경연·서바이벌 게임·농촌 봉사 등

MT가 확 달라졌어요

웰빙은 음식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단합을 위해 학기 초 떠나는 대학가 MT도 웰빙이 대세다. 래프팅·서바이벌 게임 등 '스포츠 MT', 농촌이나 복구현장에서 도움을 주는 '봉사 MT', 전공 능력 키우는 '전공 강화 MT' 등 대학생 MT가 확 바뀌고 있다.

전남대 사범대는 3월 둘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 '선생 김봉두'와 같은 교육과 관련된 영화나 인권 영화를 보고 토론을 진행한다. 또 단합을 도모할 수 있는 임무를 줘 '우리 선배, 우리 후배'의 관계를 만들어 주기 위해 노력한다.

조선대 기계공학과는 오는 21~23일까지 섬진강 피아골에서 서바이벌 게임과 래프팅을 통해 단합과 재미를 모색한다. 목포대 체육·음악학과는 19~20일 송원리조트에서 요리경연 대회를 갖고, 후배들에게 술이 아닌 음식을 대접할 계획이다.

광주대 레저 스포츠학과는 MT 대신 장성으로 3월 말 농촌 봉사 활동을 떠난다. 호남대 뷰티미용학과는 오는 26일부터 3일간 무주리조트에서 이른바 '환타스틱 헤어쇼'를 진행한다. 자신들의 전공을 활용해 메이크업·헤어·네일아트 등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서로 겨룬다.

광주대 E-비지니스학과의 경우 22일 전주 하이트 공장으로 산업시찰을 떠나 새내기를 위한 '생산현장 미리 배우기'를 진행한다.

전남대 사범대학 회장 김건우(23·교육학과 4년) 씨는 "신세대들이 대학에 입학한 이후 군사적인 MT의 잔재를 없애고 과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서로 노력한다"며 "개인주의가 만연돼 있는 사회에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높이고, 선후배 간의 끈을 연결해줄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MT를 만들어 가는 추세"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초 광주 D대학에서는 MT 중 술에 취해 기합을 주려는 선배에게 대들던 후배가 집단 폭행당해 목숨을 잃기도 했었다. /황태종기자 hwangtae@

초등생들도 '매니페스토' 13일 치러진 광주 신창초등학교 학생회장 선거에서 후보 학생들이 자신들이 내건 공약을 점검·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매니페스토' 협약 및 선서식을 가졌다. 광주경제정의실천연합은 초등학생들의 책임의식 함양과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을 위해 앞으로 장원·신암·불로·일곡 등 4개 초등학교에서도 매니페스토 시범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학교 운동부 기부금 공개

광주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은 13일 학교 운동부의 잡음을 없애기 위해 운동부 운영자금 접수 및 사용 세부내역, 결산서 등을 후원회에 공개하도록 했다.

교육청은 또 학부모나 외부단체가 운동부에 기부하는 금품은 학교 회계 또는 발전기금 회계에 편입해 사용하도록 했다.

축구·야구 등 인기종목 운동부를 운영하는 광주지역 일부 학교의 경우 운동부 학생의 부모들이 코치 수당·간식비·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1인당 한 달에 10만~30만원의 기부금을 내놓는 게 관례였다. 또 이에 따른 잡음으로 지난해 국가청렴위원회의 16개 시·도교육청 체육선수 육성 분야 청렴도 평가에서 광주시교육청은 하위를 기록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운동부 기부금이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되지 않고 부적절하게 사용돼 불신을 받아왔다"며 "자금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순일 교육감은 14일 일선 학교 운동부와 학부모들에게 운동부 자금 투명성 제고를 당부하는 내용을 담은 서한문을 발송한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학교폭력 신변보호 내달부터 시작

교육부와 보안전문업체 KT텔레캅은 13일 '안전한 학교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내달부터 청소년 유해환경 지역을 순찰하고 신변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며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 따르면 KT텔레캅은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등하굣길에 신변보호 요청을 받으면 순찰차량이나 이륜차량(오토바이)에 탑승한 안전요원을 최단시간에 현장으로 보내 해당 학생을 학교나 집으로 안전하게 태워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KT텔레캅은 학교 주변의 청소년 유해환경 지역이나 학생들의 폭력사건이 빈번한 지역을 정해 정기적으로 순찰하다가 위험상황이 감지되면 이를 학교 측에 통보해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계획도 있다. 신변위협을 당한 학생은 재학중인 학교나 KT텔레캅 고객센터(1588-0112)로 전화를 걸어 담당교사·본인 성명 및 전화번호·위험내용 등을 알려주면 경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내시경·레이저 수술도 보험금 지급

내달부터 내시경이나 레이저, 감마나이프 수술 등 칼을 대지 않는 첨단 수술을 받거나 입원을 하지 않은 채 수술을 받아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민원이나 분쟁 유발 소지가 있는 불합리한 보험약관을 이같이 개정, 내달 1일부터 적용하라고 각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 지시했다.

보험사들은 금감원 지시에 따라 해당 약관개정 작업을 추진, 가급적 내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현행 보험약관은 개복개흉이나 봉합 등 수술기구를 사용한 구체적 의료행위만 수술로 인정하고 첨단 기술을 이용한 수술은 '시술'로 규정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또 반드시 입원 후 수술을 해야 수술보험금을 지급해 왔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부담보(不擔保·이미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거나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것) 기간이 설정된 암 및 질병보험 등의 경우 같은 부위에 질병이 다시 발생하더라도 보험사가 보험계약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것도 개선토록 지시했다. /연합뉴스

'신입생 길들이기' 교육부, 근절 지시

교육인적자원부는 새 학기를 맞아 일부 대학에서 불거진 체육대학 학생들의 '비인격적 신입생 길들이기'와 관련해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전국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에 지시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개선 ▲선·후배 멘토링 도입 ▲폭력 신고센터 운영 등 대학별 대책을 마련하고 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엄격한 징계 등 학사관리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연합뉴스